# 부록

## 1_하천의 경관 및 관계 변화

### 1) 조선시대의 하천경관

조선시대의 한성부는 조선의 수도로서 도성 내 중소규모의 하천들은 대체로 우수(雨水)와 오수(汚水)를 배수시키는 하수도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치수시설이 발달하지 않아 강우기에 상습적으로 범람하였고 개천 및 준천공사와 같은 치수기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 문호를 개방하며 근대화 바람이 불기 시작함에 따라 하천의 형태도 근대화 영향에 따라 도로개수, 하수도사업과 더불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암거의 형태가 최초로 나타나는데 서울의 최초 암거지역으로 현재 '충무로 2가'로 추정되는 니현(泥峴)지역에서 도로개설을 위해 진행되었다. 이후 1930년대에 들어 총연장이 6,832m에 달하는 소하천이 암거된 것으로 「경성도시계획서」에 기록되어 있다.

### 2) 일제강점기 하천경관

일제강점기에는 서울 하천의 경관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근대적인 도로개수, 하수도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민족의식을 상징하는 유적과 시설을 제거하고 일본식 도시상을 심어 일본 식민통치의 거점도시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경성부 남부에 '신경성시가지(新京城市街地)'를 조성하여 일본인들의 주거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로 인해 청계천을 기준으로 북쪽은 내국인, 남쪽은 일본인 거주지로 나뉘어 지리적 분화가 이루어졌고 일본식 도시로 도시상이 변화하였다. 1912년 태평로 개수를 시작으로 회현일대의 대로변 수로가 제거되었으며 하천과 대로가 인접하는 곳에서는 대로의 근대적 도로개수와 함께 인접 하천들은 부분적으로 암거되어 분절된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이 기간에 '청개천'의 복개를 비롯하여, '중학천(삼천동천)', '대학천(흥덕동천)', '욱천'이 복개됨에 따라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3)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이전의 하천 경관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하천의 복개나 암거와 같은 지형적 변화가 발생하였지만 그 수준이 미미했고 대대적인 변화는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에 이르는 약 40년의 기간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는 사회적으로 해방 이후의 불안정한 구조상 문제와 6.25전쟁의 전란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과제였다. 이 시기에 가장 특징적인 사회적 문제는 서울로의 인구 과다집중 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적 기반시설의 부족, 특히 주거지의 부족으로 인한 구릉지·수변·계곡 등 국공유지에 무허가 주거건물이 난립하게 됨을 들 수 있다.

전란의 극복 등 급격한 사회변화과정에서 무허가 '판자촌'은 일정부분 정책적으로 용인되었는데 해방 직후인 1949년 전체주택 비율 대비 무허가 불량주택의 비율이 13.7%에서 1966년 37.7%로 15년간 약 1.8배 상승하였다(장세훈, 1987). 또한 이전의 도시규모로서는 인구의 폭증과 밀집을 수용할 능력이 결여되어 신규택지 조성과 도로의 신설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청계천과 중랑천변의 판잣집은 하천의 복개 및 직강화 공사와 함께 강제철거되어 도시의 변두리 지역으로 집단 퇴거되었으나 당장에 필요한 도로율이 증대되고 교통 혼잡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위생보건상의 문제 역시 개선되었다는 이점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복개화 과정에서 9개 지천·세천(청계천, 중학천, 대학천, 관동천, 욱천 후암천, 승인천, 신당천, 성북천)이 상실되어 과거에 갖고 있던 자연적 수경관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한편 이면에는 무단 점거된 수변 공간의 비위생적 환경으로 전통적 자연경관이 이미 사라져 그 가치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취해진 조처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 시기에 도시재개발법의 제정과 함께 하천변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여전히 부족한 교통 기반시설의 해소를 위해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중소하천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대대적으로 복개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한강 이남지역의 복개는 특기할 만한 일로 이 시기에만 서울중심부 지역과 그 주변지역까지 복개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1936년에 서울시로 편입된 외곽지역까지 복개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하천의 직강화 공사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복개천은 1960년대에 복개가 시작된 욱천과 성북천을 포함한 총 7개 지·세천(욱천,

성북천, 봉원천, 월곡천, 전농천, 중곡천, 화계천)과 직강화 공사가 이루어진 3개 지·세천(불광천, 대방천, 안양천)의 자연경관이 인공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복개와 직강화 공사는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지역을 보호하는 치수 역할과 부족한 교통로의 확보, 폐천 부지의 택지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 4) 1980년대 이후 경관 변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이 제정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광범위한 난개발이 도시의 스프롤(확산) 현상과 함께 교통문제를 더욱 가중시켰고 환경의 심각한 오염 및 자연 공공 공간의 부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의 하천공간 개발이 더욱 진지하게 고려되는 한편 제방의 도로이용과 둔치의 위락적 활용 등 기존의 도시 기반시설로 국한된 하천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확대되는 시기였기도 하다. 하지만 복개와 암거는 둔화되지 않고 오히려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강남의 복개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복개된 4개 지·세천은 강북의 당현천을 포함하여 강남의 사당천, 봉천천, 시흥천으로 그 구획이 서울의 전역에 해당한다. 해방 이후부터 1992년까지 복개 요구 연장 약 58㎞ 중 82.8%에 해당하는 약 48㎞ 구간의 복개가 완료되었는데 이는 전체 하천 연장 237,715m의 20.3%에 해당한다. 복개된 구간은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되었다. 다만 활용목적에 있어 큰 변화가 진행되었는데 하천을 단순히 도로와 주차장과 같이 도시의 기반시설로서가 아닌 휴식·체육·위락공간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1980년대에 이르면서부터이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하천을 도시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중랑천의 경우 1983년부터 복개되지 않은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수림대와 같은 식생 생태계 및 체육시설과 휴식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는 1994년부터 복개된 12개 하천을 제외한 23개 하천 149㎞ 구간에 휴식 및 위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침과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2_하천 경관 및 관계 변화 요인

경관과 관계의 변화 요인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중소하천 일대는 유역의 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속이 느려지고 강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범람원이 존재하게 되는데 농업과 상업의 발전으로 인해 도시화가 진행되고 택지와 생활환경공간의 부족, 그리고 증가하는 인구와 생활 오염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견인·접목하게 된다. 또한 구 시가지의 인구집중과 하천 복개, 교통로로의 활용, 구시가지의 확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하천의 경관을 변화시키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분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변화가 하천의 경관과 활용목적, 분절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상호적이고 통합적인 관계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와 관계를 정리하면 [부록 표-1]과 같다.

**[부록 표-1]** 서울특별시의 하천 경관 변화

| 시기 | 배경 | 하천경관 |
|---|---|---|
| 조선시대 | ▪ 범람과 침수를 막기 위한 치수 | ▪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며 소극적으로 활용 |
| 일제강점기 | ▪ 도로개수 및 신설<br>▪ 하수도 공사 | ▪ 중학천, 대학천, 필동천, 장충천 등을 제외한 도성 내의 모든 하천이 복개<br>▪ 도성 밖의 하천변은 대부분 그대로 농경지로 활용 |
| 해방 이후~<br>1980년대 이전 | ▪ 인구집중<br>▪ 급격한 도시화<br>▪ 부족한 기반시설<br>▪ 도로확장 및 환경정비 | ▪ 도성 내의 모든 하천과 그 주변의 욱천, 신당천, 성북천의 일부가 복개<br>▪ 도심 주변의 하천변 무허가 건물의 확대, 정리 |
| 1980년대 이후 | ▪ 자연공간에 대한 요구 | ▪ 시흥천, 사당천, 봉천천 등 한강 이남의 복개<br>▪ 하천공간 개발 |

자료: 노혜정, 1994, "서울시 중소하천의 경관변천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제24권, p.95의 내용을 수정 인용함.